

악마와 요정

[배경과 진상]

카풀릿 가문에 한 소녀가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줄리엣. 그녀의 마음 속에는 나쁜 마음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이를 알고 있던 카풀릿 가문은 마법에 능통한 몬테규 가문의 도움을 통해 그녀의 나쁜 마음을 밖으로 끄집어 내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줄리엣의 나쁜 마음, 악마는 줄리엣을 저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악마는 줄리엣이 자라나는 동안 어둠 속에 암약해왔습니다.

몬테규 가문과 카풀릿 가문의 사이를 틀어놓고, 몬테규 가문의 로미오와 줄리엣이 서로 좋아하도록 만들고, 둘의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악마는 줄리엣이 모르도록 몰래 속삭였습니다. 가짜 독약에 대해서.

가짜 독약은 먹으면 가사 상태에 빠집니다. 다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다시 깨어날 수 있습니다. 이 가짜 독약을 먹고 몰래 가문을 빠져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줄리엣이 가짜 독약을 먹고, 죽은 것으로 판명되어 카풀릿 가문 저택 지하에 묻히고 나서, 악마는 로미오가 줄리엣의 시체를 보도록 유도했습니다. 곧 줄리엣의 시체를 보고 절망한 로미오에게, 악마는 제안합니다.

"줄리엣을 살려줄게. 대신 나와 계약을 하는거야."

"나에게 두 저택과 너를 준다고 약속을 해. 그렇게만 약속하면, 줄리엣은 언젠가 살아날거야."

로미오는 악마에게 계약했습니다. 악마는 두 주택을 하나로 만들고, 로미오로 하여금 저택의 모든 인물을 스스로 베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줄리엣을 깨어나지 못하도록 수정 안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악마의 저주는 성공했고, 줄리엣의 영혼만이 수정에서 간신히 빠져나와 저택을 배회하고 있습니다. 둘의 저주를 풀어줄 사람을 기다리며...

[저택의 구조]

1층

계단	주방	주류 보관실	식품 보관실	도축장	계단
계단	식당	현관	응접실	계단	계단

2층

계단	서고	집무실	무기 보관소	창고	사냥감 박제 보관실	계단
계단	고용인 숙소 1	고용인 숙소 2	고용인 숙소 3	고용인 숙소 4	고용인 숙소 5	계단

3층

주인 방	치장실	줄리엣의 방		
계단	손님 방 1	빈 방	손님 방 2	계단

이번 시나리오의 배경이 되는 카풀릿 가문 + 몬테규 가문입니다. 대부분의 방이 카풀릿 가문의 것을 따라가고 있지만 3층의 빈 방과 줄리엣의 방, 2층의 무기 보관소는 몬테규 가문의 것입니다.

각각 미술품 보관실, 로미오의 방, 무기 보관소로 대체되었습니다. (즉 무기 보관소는 그대로입니다.)

[도입부]

여러분들이 눈을 떴을 때, 그 곳은 허름한 저택이었습니다.

천장은 아름다운 문양을 새겨놓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제는 바래서 알 수 없고, 고급져보이는 벽지는 낡아서 이미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벽의 촛대는 초를 놓기는 커녕 스스로 버티기에도 버거워 보이며 바닥은 빨간 얼룩으로 지저분합니다.

빨간 얼룩에 소름이 돋은 당신은, 주변을 둘러보던 도중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바닥 이곳 저곳에 널려있는 백골과 피의 얼룩들을 말이죠.

이런 모습을 본 탐사자들은 SAN 체크입니다. 1/1D4 감소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다시 주변을 둘러보면 자그마한 빛이 도깨비 불처럼 떠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목소리가 나옵니다.

“저기, 제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이건 요정인걸까요? 아무래도 이야기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줄리엣]

여러분들이 빛을 향해 말을 건네면, 그 빛은 여러분들을 향해 다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제 목소리가 제대로 들리시나 보군요. 다행이에요. 제 이름은 줄리엣이에요. 과거 이 곳에 살던 한 영혼이랍니다.

혹시 괜찮다면, 저를 도와주실 수 있나요? 일단 제 이야기만이라도 들어주셔도 된답니다.
그쪽에도 손해인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저의 애인인 로미오는 저를 되살리기 위해 악마와 계약을 해 영혼을 빼앗긴 채 지금 이 저택의 1층을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런 그를 해방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방법은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 저택을 돌아다니다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이곳에서 나가기 위한 방법도 저택을 돌아다니다 보면 알 수 있을지도 모르고요.”

“일단은 이 저택에 대해 궁금한 게 있다면 최대한 알려드릴게요.”

※줄리엣에게 질문하면 대답해줍니다.

#이 곳은 어디인가?

“이 곳은 카풀릿 가문이에요. 정확히는 그 2층이지만요.
그와 동시에 몬테규 가문이기도 한데... 뭐라고 설명하면 좋을까요. 로미오는 악마와 계약할 때 자신과 2개의 가문을 준다고 약속했어요. 이 때 악마는 몬테규 가문을 카풀릿 가문 아래에 교묘하게 숨겨놓았답니다. 숨겨지지 못하고 몬테규 가문 쪽이 드러나거나 한 경우도 있지만요.”

#이곳에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가?

“로미오는 제가 있는 지하실을 지키기 위해서인지 1층에서 위로 올라오지는 않아요. 하지만 2층과 3층에는 잘 모를 괴물이 있었어요.”

#악마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악마라면 무서운 존재 아닐까요.”

#로미오와 줄리엣의 과거

“로미오와 저는 서로 사랑했지만 두 가문이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아서 이어지지 못했고, 이를 못 이긴 저는 독약을 먹기도 했었어요.

아, 물론 진짜 독약은 아니고 가짜 독약이라 시간이 지나면 깨어나겠지만요. 누가 봤으면 의심도 하지 못할 정도로 죽은 것 처럼 되는 독약이었어요.”

#저택의 구조에 대해서

“1층에는 주방과 식당, 그리고 음식을 보관하는 창고가 있어요. 아, 응접실도 1층에 있고요.
2층에는 서고, 집무실같이 업무를 보는 곳이나 창고와 무기 보관소가 있고, 고용인들도
2층에 머물렀으니 고용인 숙소도 2층에 있겠지요.
3층은 저와 제 가족, 손님이 묵던 방이에요.”

[서고]

문을 열고 들어가면 천장까지 달을 크기의 커다란 책장에 책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높은 곳에 있는 책을 꺼내기 위한 사다리 또한 준비되어 있지만, 이 사다리의 상태를 보면 무사히 사용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자료 조사 판정 시

먼지가 쌓여 있는 책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영어로 되어 있고 단어가 상당히 예전 것이라 알아보기 힘들지만 의미 있는 내용의 책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 권의 책만 심하게 훼손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는군요.

[집무실]

집무실 문을 열면 인간의 형태를 한 것이 서 있습니다. 사람의 크기나 옷 등을 짐작해 보았을 때 남성으로 추측되지만 얼굴에 검은 페인트라도 칠해둔 듯이 그림자가 짙게 생겨서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이런 있을 수 없는 상황에 여러분은 SAN 체크 입니다. 1/1D4 감소입니다.
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지금은, 움직이지 않는 듯 합니다.

※줄리엣의 아버지의 망령입니다. 방으로 들어가면 전투가 시작합니다.

안으로 들어서면 남성이 여러분이 있는 쪽을 스윽 바라보더니 여러분이 있는 곳으로 다가옵니다.

아니, 빠르게 달려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과 싸우려는 것 같습니다.

줄리엣의 아버지(망령)

STR 50. EDU 80. INT 70. CON 50.

APP ???(알 수 없음). POW 65. SIZ 70. DEX 60. LUK 40.

DB-0 체력 12 마력 13

태클(80) 데미지 1.

상대에게 달려들어 공격한다. 상대방과의 거리를 단숨에 좁힌다.

주먹질(70) 데미지 1D4

주먹으로 때린다. 맞으면 아프다.

회피(30)

피한다.

남성은 털썩 무릎부터 쓰러지더니, 몸이 점차 안개처럼 흩어져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안개는 점차 많아져 방 전체를 가득 채우더니,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안개가 자욱해집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딸에게 악마가 들었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게! 아직 우리 딸은 태어난지 반년도 안 됬다고!”

“나는 내 딸을 버릴 수 없네. 그것이 아비 된 자로서의 도리니까.”

“그렇게 걱정이라면, 그 가문에게 도움을 청해보도록 하지. 그 가문쪽은 마도서를 여럿 모으기도 하니까 말이지.”

남성의 목소리가 끝나고 나서는 점차 안개가 걷히더니 본래 있던 방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집무실에는 업무를 보기 위한 탁자와 의자가 있습니다. 방 한구석에는 화분도 하나 놓여있습니다. 식물은 아마 전부 시들어 버린 것이겠지요.

#의자 관찰 시

의자는 상당히 고급져 보이는 의자입니다. 먼지가 쌓여서 않고 싶은 기분은 들지 않지만 말이죠.

#탁자 관찰 시

탁자에는 서류로 보이는 종이들이 가득 쌓여 있고 그 위에는 다시 먼지가 쌓여 있습니다. 종이에는 피가 잔뜩 튀어 있어 읽을 수 없습니다만, 간신히 카풀릿 가문의 서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찰 판정 성공 시

종이를 뒤지던 도중 열쇠를 하나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무기 보관소]

방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지금과는 사뭇 다른 풍경에 놀라게 됩니다.

하나같이 번쩍거리는 검과 레이피어, 무거워보이는 갑옷을 비롯해 여러 무기와 방어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가장 큰 위화감은 방이 다른 곳들과 달리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줄리엣에게 물어보면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아마 이 방은 몬테규 가문의 저택 부분일 거예요. 어떤 원리인지는 저도 모르지만, 몬테규 가문 저택의 부분은 항상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던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된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행히 이 곳에서 무기를 구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고]

문이 잠겨 있어서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열쇠 구멍으로 들여다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안을 들여다보아도 잡동사니 외에 별 다른 것들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냥감 박제 보관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벽에 걸려 있는 수많은 사슴의 얼굴이 여러분들을 반겨줍니다. 그 외에도 곰이나 멧돼지 같은 것들도 걸려 있고, 장식대 아래쪽에 사냥한 날과 사냥한 인물이 적혀 있는 것으로 보아 직접 사냥한 것들이나 선물 받은 사냥감 박제를 보관해두는 장소인 듯 합니다.

[고용인 숙소 2]

※고용인 숙소 2번 이외의 고용인 숙소는 침대를 비롯한 기본적인 가구만 존재할 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사람의 형체가 방 한 가운데 서 있습니다. 체형과 옷으로 미루어 생각해볼 때, 여성인 것으로 생각되며 들고 있는 대걸레로 바닥을 닦는 걸 보면 마치 이곳에서 일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얼굴은 복면이라도 쓴 건지 검어서 보이지 않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가면 여성은 여러분을 지긋이 바라보더니 대걸레를 휘두르며 덤벼들기 시작합니다.

줄리엣의 유모(망령)

STR 40. EDU 60. INT 50. CON 80. APP ???.

POW 40. SIZ 60. DEX 80. LUK 30.

DB-0. 체력 14. 마력 8.

대걸레 휘두르기(50) 1D4

들고 있는 대걸레를 휘두른다.

회피(40)

여성은 잠시 비틀거리더니 벽으로 쓰러져 벽에 완전히 기대어 버립니다. 여성의 몸은 점차 안개가 되어 방을 메웁니다. 곧이어 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아가씨, 대체 그 남자가 뭐가 좋다고 자꾸 그러는 겁니까?”

“한 눈에 반했다고요? 하지만 그 사람은 아가씨가 전부터 말하던 이상형과 상당히 다르지 않았습니까.”

“아뇨, 저는 아가씨가 마치 악마에 훌렸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저는 그저... 아가씨! 어디 가세요!”

목소리가 멈추고 곧 안개가 걷히더니, 벽에는 결국 대걸레 한 자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3층

3층으로 올라오면 역시 복도가 핏빛으로 물들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2층에서 방은 피가 묻어있지 않았던 걸 생각하면 아마도 복도에서만 재앙이 일어났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인 방]

주인 방은 잠겨 있습니다.

줄리엣에게 물어본다면, 집무실에서 자신의 아버지가 일하고 있으니 그 곳에 열쇠가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집무실에서 가져온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면 한 명이 방 중앙에 서 있습니다. 이번에도 얼굴은 검게 칠해져 있어서 볼 수 없습니다. 고급진 드레스를 입고 있는 것을 보면 여성인 것 같습니다.

※줄리엣의 어머니(망령)입니다. 이번에는 전투하지 않습니다만, 쓰러뜨릴 경우 정보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면, 여성이 여러분이 있는 쪽을 바라보고는, 여러분의 쪽으로 천천히 다가옵니다.

이윽고 여러분이 있는 곳까지 다가와서는, 줄리엣에게 손을 내밉니다.

줄리엣이 손끝에 달은 그 순간, 그녀는 안개가 되어 방을 덮기 시작합니다. 곧이어,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너는 이 곳에 와서 뭘 하려는거야. 내 딸은 죽었어! 너같은 것과 사귀지 못했다고!”

“믿을 수 없다고? 그러면 그 눈으로 직접 확인하도록 해! 지하실에 시체가 있을테니까.

악마와 계약이라도 하지 않는 이상, 내 딸은 살아날 수 없어!”

“...두 가문의 사이가 어째서 나빠진 걸까. 그렇지 않았다면 내 딸도 죽지 않았을텐데...”

한쪽 구석에 있는 거울은 낡아 금방이라도 부스러질 것 같고 옷장의 문은 이미 떨어져 내부를 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침대는 두 명이서 사용할 만큼 커다란 사이즈로 아마 주인과 그 부인이 같이 사용하던 침대인 것으로 보입니다.

#침대를 보면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침대입니다. 상당히 예전에 만들어 졌으며 귀족들이나 쓸 법한 침대라는 걸 생각해보면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건 아닐지도 모르지만요.

#거울

먼지가 낀 거울에서는 여러분의 모습이 희미하게 비치고 있습니다.

#옷장

옷장 안에 있는 옷들은 전부 오래되어 헤져있습니다. 하지만 그 옷들이 충분히 고급져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치장실]

치장실 안으로 들어가면 보석류를 비롯한 장신구가 잔뜩 있습니다. 이것들이라면 지금 당장 전당포에 가져다가 팔면 상당한 돈을 벌 수 있을 법 하군요. 그 외에 별다른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줄리엣의 방]

문을 열고 들어간다면 그 안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한 방입니다. 아마도 몬테규 저택의 방이겠지요. 어떤 방인지는 좀 더 조사해 봐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는 로미오의 방입니다.

안쪽에는 침대와 옷장, 책상이 있고 책상 위에는 자그마한 책장이 있어 책이 여러 권 꽂혀 있습니다.

#침대

상당히 푹신해보이는 침대입니다. 다만 실제로 만지거나 누워보면 기대하던 감촉과는 사뭇 다른 느낌입니다. 아마도 옛날에 만들던 침대니까 그렇겠지요.

※관찰 판정 시

침대 한 구석에서 신기한 문양이 조각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각형의 별 안에 눈동자가 들어 있는 모양이네요.

#옷장

옷장 안에는 남성의 옷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마 이 방은 남성이 쓰던 방이겠지요. 옷들을 살펴보면 20대 초반의 청년들이 입을 법한 옷인 것 같습니다.

#책상

책상 위에는 누군가 필기한 듯한 노트가 있습니다. 다행히 읽을 수 있어 보입니다.

※로미오가 작성한 노트

악마와 계약을 하여 집을 건네주었을 경우 악마는 그 집을 자신의 거점으로 삼는다. 그리고 내부의 인물들을 죽이거나 그 영혼을 유린하여 자신의 수하처럼 삼는 경우가 더러 있다. 아주 가끔 2개 이상의 저택을 동시에 계약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지만 이 경우는 두 개의 저택을 하나로 합쳐 사용하는 듯 하다.

이러한 집을 되찾는 방법은 악마와 다시 계약을 해서 집을 받아내거나 악마와의 계약을 무효로 하는 것인데,

악마와의 계약을 무효로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을 뿐더러, 만일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자신의 영역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고 그 통로를 봉인해두었을 가능성이 크다.

봉인을 해제하기 위한 방법은 악마와 봉인 방법에 따라 크게 나뉘겠지만 역시 가장 확실한 건 집 내부의 악령이나 수상한 물건을 전부 부숴보는 것이다.

#책장

책장에는 이런 저런 책이 들어있지만 하나같이 읽을 수 없는 책들입니다. 다만 평범한 책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느낄 수 있습니다.

[손님 방 1]

보통 흔한 거울 하나도 없는, 의자와 낡은 책상 정도만 존재하는 방입니다.

벽은 낡은 분위기로 황량하고, 사람이 있던 흔적은 찾아볼 수도 없어 싸늘한 공기가 풍깁니다

[손님 방 2]

텅텅 빈 방은 기능미보단 허전함을 느끼게 합니다.

인기척은커녕 먼지 하나 없는 모습이 따뜻함보단 을씨년스러움을 당신에게 가져다줍니다

[빈 방]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곳에는 석상부터 해서 그림, 동물 머리 장식 등 여러 미술품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깔끔히 정리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몬테규 가문의 쪽인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라면 일부 석상과 그림은 가죽으로 가려져 있고 몇몇은 아예 보지도 못하게 밀봉해두었다는 것입니다. 보면 정신 건강에 좋지 않은 거라도 있는 걸까요?

#관찰 판정 성공 or 동물의 박제를 확인할 시

동물 머리 장식의 받침대에는 제작 일시와 만든 사람이 써 있습니다. 하지만 제작자가 카풀릿 가문의 사람으로 되어 있군요.

“그대 가문의 협력에 감사하며”라고 적혀 있습니다.

#1층

※1층에서는 로미오가 침입자를 죽이기 위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주방이 1번, 주류 보관실이 2번, 도축장이 3번, 식당이 4번, 응접실이 5번, 식품 보관실을 6번으로 해 첫 1D6 다이스를 통해 로미오의 위치를 정합니다.

이후 PL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마다 1D6 다이스를 통해 로미오의 위치를 갱신합니다.

※1층에는 정보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방들을 만들어 둔 것은 그저 로미오와 마주쳐서 전투를 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방]

[주류 보관실]

[식품 보관실]

[도축장]

[식당]

[응접실]

[로미오와 마주쳤을 시]

문을 열고 방에 들어가자 순간 온 몸에 소름이 돋기 시작하고, 어떠한 감정이 머리 속에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분노, 슬픔, 공허 따위의 부정적인 감정이 물밀듯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눈 앞에는 이 감정의 주인이 서 있습니다. 아마도 그가 로미오라는 사람이겠지요. 더 이상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는 아닌 것 같지만 말입니다.

로미오와 마주친 공포로 인해 SAN 체크입니다. 1D4/2+1D4 감소입니다.

로미오는 오른손의 레이피어를 들고 여러분을 향해 달려들려는 듯 몸을 숙입니다. 등을 돌리고 도망가려는 순간 그 사람부터 찔릴 것이 눈에 보이듯 뻔합니다. 싸울 수 밖에 없겠지요.

로미오

STR 90. EDU 80. INT 70. CON 90. APP ???.

POW 0. SIZ 80. DEX 90. LUK 0.

DB-1D6. 체력 17. 마력 0.

찌르기(80) 1D4+DB

자신의 몸을 순간적으로 구부리며 역동적으로 상대방을 찌릅니다.

반격(30) 1D6+DB

상대의 공격을 왼손으로 훑리며 오른손으로 상대방을 찌릅니다. 대체적으로 급소에 명중합니다.

회피(70)

로미오는 등을 구부려 피격 면적을 극단적으로 줄입니다.

로미오에게 최후의 일격을 가하자, 로미오는 주변이 잘 보이지 않는지 되는대로 레이피어를 휘두릅니다. 그의 검이 얼마나 날카롭고, 그의 완력이 얼마나 강한지 벽이 파일 정도입니다. 그렇게 날뛰는 로미오에게 줄리엣이 조심스럽게 날아갑니다. 그러고는 그의 이마에 달습니다.

로미오의 검게 칠퍼진 얼굴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아니, 다시 보니 안개였습니다. 안개는 바닥에서부터 차올라 방을 하얗게 만들었습니다. 곧이어 로미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줄리엣... 오오 줄리엣... 어째서 그대가 죽을 필요가 있던 것이오...”

“이렇게 된 이상, 나도 죽을 수밖에 없소...”

“...정말 줄리엣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인가?”

“.....마음대로 하시오. 줄리엣이 살아있지 않은 세상은, 내가 살아갈 가치가 없소.”

안개가 걷히고, 로미오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습니다. 그저 눈 앞에 보이는 건, 눈물을 훔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줄리엣과 로미오가 벽에 남긴 흔적. 그리고 땅에 떨어져있는 반지 하나군요.

[로미오의 반지]

로미오가 떨어뜨린 반지는 적어도 그가 가지고 있던 것일 것입니다. 반지 한쪽에는 무엇인가 쓰여 있는 것 같지만 피로 얼룩져 알아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밑으로 내려가는 계단

[2, 3층의 망령과 로미오가 건재할 경우]

지하로 내려가는 문은 굳게 닫혀있습니다. 문에는 딱히 잠금장치가 되어있지 않는 평범한 나무문으로 보이지만 도저히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이라면 문에 그려진 문양입니다. 삼각형 안에 커다란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습니다. 문제라면 이것이 무엇으로 그려졌는지 알 수 없지만 미세하게 빛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광펜으로 그리기라도 한 것일까요?

[로미오와 2,3층의 망령들 모두 없어졌을 경우]

어라? 어렴풋이 봤을 때에는 문이 있었던 것 같지만 여러분들의 착각이었는지 계단을 가로막고 있는 문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계단은 여러분을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두운 지하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스산한 분위기가 들고 있지만,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지금은 이쪽으로 향할 수 밖에 없겠지요.

[로미오가 없어졌을 경우]

문을 확인하면 삼각형이 그려져 있긴 하지만 그림은 그저 연필이나 잉크로 그린 듯 평범해 보입니다. 문을 열면 아무런 저항 없이 열리는 듯 합니다.

계단은 여러분을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두운 지하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스산한 분위기가 들고 있지만,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지금은 이쪽으로 향할 수 밖에 없겠지요.

[2, 3층의 망령들이 없어졌을 경우]

평범한 나무문의 한가운데에는 커다란 원이 그려져 있고, 그것은 알아보기 힘들지만 미세하게 빛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을 밀어보면 어떻게든 열리는 것 같습니다.

열린 문 앞으로는 지하로 향하는 계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약간 서늘한 기분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아래로 가는 것을 고민하던 그 틈을 타 방 하나의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 곳을 보고 있으면 몇 가지 감정이 떠오릅니다. 분노. 슬픔. 공허.

그리고 이런 상황에 두려움을 느끼는 중 여러분의 눈 앞에 레이피어를 든 남성 한 명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을 지하로 보내기 싫은 것 같군요.

※로미오와의 전투가 시작됩니다. 묘사는 위의 로미오와의 조우 시를 참고해주세요.

※모두가 로미오와 싸우지 않고 몇 명은 지하로 내려가 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두가 내려가려고 하면 로미오가 순식간에 달려들어 한 명에게 1D6의 데미지를 주고, 내려가는 것은 실패합니다.

[지하]

지하로 향하는 계단을 타고 점차 점차 내려가면, 그리 크지 않은 공간만이 여러분을 반겨줍니다.

그 공간에서 여러분을 다시 반겨준 것은 나무로 된 관. 관 안쪽에 있는 것은 사람입니다. 아리따운 아가씨군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 아가씨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줄리엣은 마치 죽어있는 듯 숨조차 쉬지 않고 관 안에 평온하게 누워 있습니다. 자신의 역할을 다하기 위함이라는 듯 그 옆에는 성냥갑과 성냥도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곳까지 왔다면, 악마와의 계약을 깨기 위해 해야 할 일을 알고 있겠지요. 남은 것은 여러분들의 손으로 이 비극을 마무리짓는 것 뿐입니다.

※만일 시체를 태워야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거나, 꺼려한다면 줄리엣을 통해 태우도록 장려해주세요.

[엔딩 A]

모든 망령의 기억을 엿보았을 경우

※모든 망령의 기억과 정보를 입수하여 사건의 진상에 충분히 접근한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추리가 완전히 빗나갔을 경우 이 엔딩은 보여주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서 있는 두 개의 저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이 오래된 비극을 이제 여러분의 손으로 끝맺을 때입니다.

성냥에 불을 붙여, 나무 관에 옮기면 불은 강하게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방이 좁아 버틸 수 없는 여러분은 지하실을 급히 빠져나갑니다. 등 뒤에서 악마의 절규가 들리는 것 같지만 애써 무시하고 밖으로 빠져 나옵니다. 그런 여러분의 귀에, 어렴풋이 줄리엣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고마워요, 여러분.”

정신을 차리면 언제 그랬냐는 듯, 저택에 오기 전에 있던 곳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의, 악마에 의한 두 가문의 비극은 이것으로 막을 내리고 평온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무관에 직접 불을 붙인 사람만 해당되는 글입니다.

꽉 쥐고 있는 손을 열어보면, 그 손 안에는 반지 하나가 있고 그 반지에는 쪽지가 묶여 있습니다.

쪽지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그대의 협력에 감사하며”

쪽지가 묶여 있어 보이지 않던 문구가 보입니다 For Juliet. From Romio.

[엔딩 B]

로미오의 기억을 엿보지 않았을 경우

성냥에 불을 붙여, 나무 관에 옮기면 불은 강하게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방이 좁아 버틸 수 없는 여러분은 지하실을 급히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빠져나가려 노력하던 도중, 눈 앞에 나타난 것에 절망합니다. 로미오는 어떻게 해서라도 지하실로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죽는건가 했지만, 로미오는 여러분을 제치고 지하실로 빠르게 뛰어 들어 갔습니다.

그런 로미오에게 신경 쓸 겨를도 없이 뜨거운 불길을 피해 지하실 밖으로 나가면 그 곳은 여러분이 있던 장소였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하지만 이것으로 해결된 것은 있습니다. 분명, 로미오와 줄리엣은 이것으로 편하게 되었겠지요.

※나무관에 직접 불을 붙인 사람만 해당되는 글입니다.

꽉 쥐고 있는 손을 열어보면, 그 손 안에는 반지 하나가 있고 그 반지에는 쪽지가 묶여 있습니다.

쪽지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그대의 협력에 감사하며”

쪽지가 묶여 있어 보이지 않던 문구가 보입니다 For Juliet. From Romio.

[엔딩 C]

2, 3층의 망령의 기억을 전부 보지 않았을 경우

로미오의 기억에서 줄리엣에게 악마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안 여러분은 줄리엣의 시체를 태우기로 합니다. 줄리엣의 시체는 불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그저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불은 뜨겁지 않습니다. 오히려 포근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지하실이 불에 휩싸여 앞을 볼 수 없게 된 그 때, 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저를 해방해주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눈을 뜨면 그 곳은 전에 있던 곳입니다. 아마도, 이것으로 로미오는 악마로부터 해방될 수 있던 것이겠지요.

보상

저택에서 무사히 탈출했다-SAN치 1D6 회복

2, 3층의 세 망령의 기억을 엿보았다-SAN치 1D4 회복

로미오와의 전투에서 승리하였다-SAN치 1D4 회복

[줄리엣의 반지]

하루 한 번 감소하는 SAN치를 마력으로 대신할 수 있다.

줄리엣이 여러분에게 고마움을 표현한 반지입니다. 안쪽에는 **For Juliet. From Romio,** 라 적혀있습니다.

[로미오의 반지]

하루 한 번 감소하는 체력을 마력으로 대신할 수 있다.

로미오가 떨어뜨린 반지입니다. 안쪽에는 **For Romio. From Juliet.**라고 적혀있습니다.